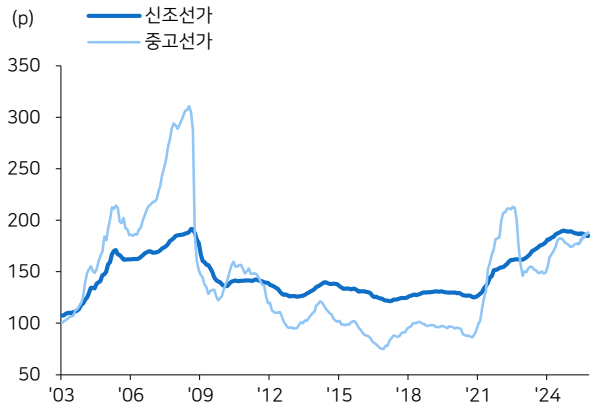
2025. 11. 5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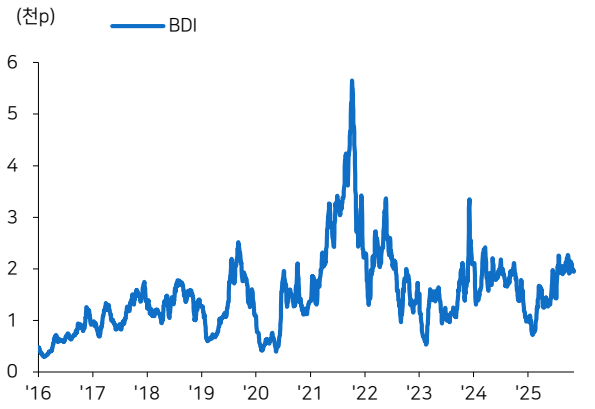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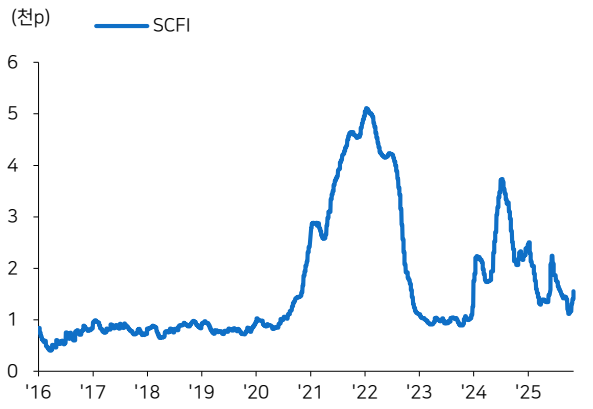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5.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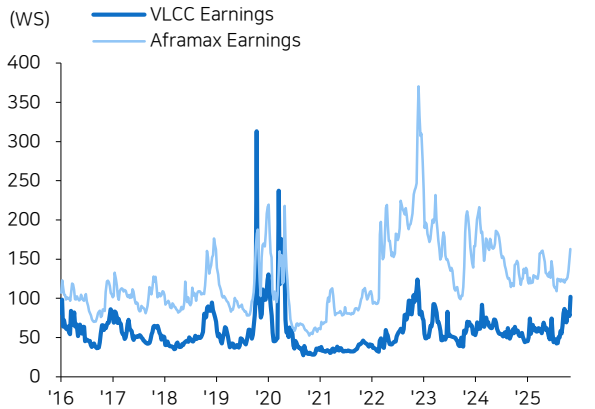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58.0p (+1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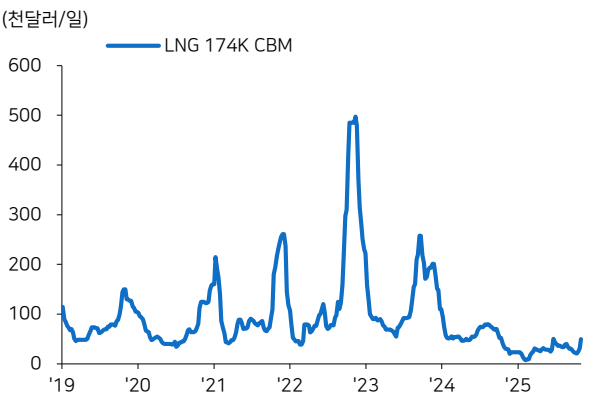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550.7p (+147.2p WoW)



VLCC Spot Rate 101.9WS (+24.5p WoW)



LNG Spot 운임 49.8천달러 (+19.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헤그세스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산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짐.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계속해서 긴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짐. (https://buly.kr/D3fKzd1)

HD 한국조선해양 "美 MRO 제안서 작성중, 잠수함 캐파 대폭 확장" **뉴스 1**

HD한국조선해양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젝트에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와 공동 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참여를 위해 잠수함 건조 캐파를 대폭 확장하겠다 밝혔다고 보도됨.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건조 발언 이후 한미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짐. 한미 정부 간 미국 현지 건조 방식 등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특수선사업부에 잠수함 건조 캐파(생산능력)를 대폭 확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DIKMunf)

Greek-American shipowner targets US government contracts for newbuildings **TradeWinds**

그리스 SteelShips가 K Shipbuilding 진해조선소에서 미국 규격으로 5만 DWT급 MR2 탱커 2척을 건조해 2027년 초 미국 국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이는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돼 미국 선박 등록부에 편입되는 첫 사례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두 선박은 미 정부의 Tanker Security Program 참여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알려짐. 본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선급협회의 검사관들이 한국 현지에서 직접 선박 규격을 검사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고 전해짐. (https://buly.kr/EoounQh)

Adnoc investment arm joins with Eni and YPF on Argentina LNG project **TradeWinds**

에너지 기업 Adnoc의 투자 부문인 XRG가 YPF 및 Eni와 협력하여 연간 3,000만 톤 규모의 아르헨티나 LNG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됨. XRG에 따르면 이날 아부다비 국제 석유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서 초기 비구속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력은 XRG가 미주 전역에서 가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전해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600mtpa규모의 FLNG 2기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현존하는 FLNG 설비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https://buly.kr/GktFZfl)

US is first country to export 10m tonnes of LNG in a month as rates rise **TradeWinds**

미국이 10월 한 달 동안 1,010만 톤의 LNG를 수출하며 월간 1,000만 톤을 넘어선 첫 국가가 됐다고 보도됨. Venture Global의 Plaquemines 플랜트 가동과 Cheniere의 Corpus Christi stage 3 프로젝트 생산량 증가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전해짐. 유럽은 여전히 주요 수입지로, 전체 미국 수출의 69%인 690만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9월의 622만 톤에서 증가한 수치로, 겨울철을 앞두고 저장고를 채우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알려짐. 대서양 지역의 가용 선박 부족으로 단기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H6ilXpB)

Over 100 LNG carrier newbuildings needed for new liquefaction projects, HD KSOE says **TradeWinds**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승인된 신규 LNG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고 보도됨. 미국을 중심으로 LNG 프로젝트 승인 재개가 신조선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선주들이 선가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해 향후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해짐. 컨테이너선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며, 유조선 부문에서도 운임 강세와 낮은 수주잔량이 신조 발주를 자극할 전망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FhOhhR3)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